

열받은 지구 ... 전남 농어민 수난

폭우·고수온 등 기상이변에 올 여름 한철에만 700억대 피해
태풍 오마이스 강타·가을장마까지 ... 농어민 지원 대책 절실

예측 불허의 기상 악재들이 잇따라 찾아들면서 농심(農心)이 땅들고 있다.

7·8월 여름 한 철에만 물 폭탄성 장맛비와 30도를 웃도는 고수온이라는 기상 악재로 수백 억 원의 농수산물 피해를 본 상황에서 또 다시 최대 400mm의 폭우를 동반한 것으로 예보된 여름 태풍이 몰아치면서다.

이처럼 늘어나는 농어가 피해에 전남도는 추석 명절 농수산물에 대한 '김영란법 완화', 전복 등 수산물 판촉 운동,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근본 대책 수립이 절실히 보인다.

전남지역 농어민들은 "농업과 수산업은 국민 먹

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 산업이지만 정부는 농어민을 각종 재해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고서 이날 밤 전남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전남 농어가에 도 비상이 걸렸다. 많은 비와 함께 24일까지 최대 순간풍속이 시속 100km까지 불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까지 나온 터라 해상 가두리 양식장과 시설 하우스 재배농장 등 전남 농어가는 막판까지 피해를 최소화하느라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2개월 여름 동안 농어민들은 폭염과 폭우,

고수온에 맞서 고군분투해왔다.

7월 초에는 단 이틀간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00mm의 물 폭탄성 장맛비가 내리면서 농축수산 분야에서만 7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어 찾아온 폭염도 농어민에 생채기를 남겼다. 특히 여수를 중심으로 해상 가두리 양식장 피해가 컸다. 평년 수온을 5도 이상 웃도는 30도 이상의 고수온 상태가 연일 지속됐기 때문이다. 어류는 서식 한계수온을 웃도는 고수온 상태가 발생하면 용존산소 부족 등으로 집단 폐사한다. 조피볼락(일명 우럭)과 전복은 28도, 납치는 29도가 한계수온인데 양식어가 예상하지 못한 30도 이상의 고수온 상태가 수일간 지속됐다. 고수온으로 인해 지난 8일까지 여수와 완도지역 17개 어가에서는 모두 139만4000마리의 어패류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은 10억원 수준. 이후 집계된 폐사 어패류 규모는 이전 조사량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고수온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양식 어가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고 있다.

오한운 한국전북산업연합 회장은 "폭우와 폭염, 고수온 등 유례없는 기상 재해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감소 등 겹겹이 악재로 수산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호 전남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농업과 수산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 기간 산업이지만 정부는 각종 재해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농어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먼저 재해보험 지급률을 현실화하고, 도로·제방 등 공공부문 피해 복구 중심인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를 고쳐 농어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서 고교생 9명
코로나 확진 '비상'
전남, 8월 한 달 400명 넘어서

광주 서구 모 고등학교 2학년 학생 9명이 코로나 19에 확진돼 해당 학년 전체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8월 한 달간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해 2월 코로나 19 첫 확진자 발생 이래 월별 최고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23일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1명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보여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학교 전교생 731명과 교직원 93명 등 824명과 가족 등을 검사한 결과 지표 환자를 포함해 2학년 학생 9명, 가족 1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2개 반에서 각각 7명, 2명이 확진됐으며 이들의 동선에는 편의점, PC방, 동전 노래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2학년 전체 등 학생 291명과 교직원 21명을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1, 2학년은 다음달 3일까지 원격 수업을 하게 된다. 다만, 백신을 접종한 3학년은 등교한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실태와 화장실, 급식실 등 이용 현황을 파악하면서 현장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다.

심층 역학조사로 감염원을 추적하고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면 접촉자도 재분류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에서는 이 학교 관련 2명, 전북 확진자 관련 1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1명 등 6명이 신규 확진됐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 17일 32명, 18일 21명, 19일 22명, 20일 28명, 21일 22명, 22일 33명 등으로 20~3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는 2467명이 됐다. 여수에서는 해외 입국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순천에서 2명, 진도에서 1명이 신규 확진됐다. 앞서 22일 하루 동안 전남에서는 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이날 들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418명이 됐다. 이는 지난해 2월 전남지역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종전의 월간 최대 규모였던 지난 5월 413명을 넘어선 역대 최다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태풍 '오마이스' 영향 광주·전남 400mm 폭우

제 12호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24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최대 4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시속 45km로 북상 중인 태풍 오마이스가 23일 자정께 여수 남서쪽에 상륙, 24일 새벽 3시 포항을 거쳐 오전 중 한반도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는 24일까지 100~300mm, 남해안과 지리산 등 일부지역에는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24일 오후 3시까지 곳에 따라 시간당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고, 이 기간 최대 순간풍속도 시속 100km까지 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태풍은 24일 한반도를 지나가며 비는 이날 오후께 전남서해안부터 차차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25일 오후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많은 비가 원활히 배수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북동향 선박 대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남해안 인근으로 북상 중인 23일 오후 고흥 북동항에 크고 작은 선박들이 피항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2년간 유예기간 두기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 9개월 만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주목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 이

어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수술실 CCTV 설치의 무화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

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됐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협되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굿모닝 예향 - 김금숙 작가·팬덤 문화 ▶ 18·19면

KIA, 내이수 김도영 선택했다 ▶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unshine GWANGYANG

아이 양육하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일상이 드라마가 되는 문화·예술·관광 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도시

행복도시광양

광양시